

FROM
BULGARI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지원



2023 동서악회 & 소피아뮤직위크 국제교류 불가리아 프로쉬 현악사중주단 초청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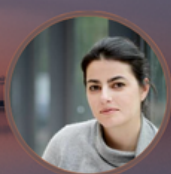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 THE SOFIA MUSIC WEEKS

KOREA-BULGARIA EXCHANGE CONCERT

with the string quartet "FROSCH"

PRE-LECTURE "Bulgarian Contemporary Music for String Quartet"

Lecturer (강사):
Prof. Momchil Georgiev



푸르지오 아트홀
PRUGIO ART HALL

2023.11.4(토) 오후 4시 30분
Saturday, 4th November 4.30pm

Organizer (주최): 동서악회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Operator (주관): 현대문화예술기획 Contemporary Culture Arts Group

Support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소피아뮤직위크재단 Sofia Music Weeks

하나아트네트워크 Hana Art Network

베셀라 콘다코바 Vesela Kondakova



[www.http://east-westmusic.org](http://east-westmusic.org)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지원

2023 동서악회 & 소피아뮤직위크 국제교류

불가리아 프로쉬 현악사중주단 초청 음악회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 The International Festival Sofia Music Weeks

Korea - Bulgaria Exchange Concert
with the String Quartet "FROSCH"

11. 4th. (sat.) PRUGIO Art Hall

4:30 pm Seminar

<불가리아의 현악사중주를 위한 현대음악>

-Bulgarian Contemporary Music for String Quartet-

*Lecturer : Prof. Momchil Georgiev
(Director of Sofia Music Weeks)

5:00 pm Concert

류경선 Kyoung-Sun Ryoo

김종균 JongKyun Kim

최영아 Young A Choi

판초 블라디게로프 Pancho Vladigerov

마린 골레미노프 Marin Goleminov

도브링카 타바코바 Dobrinka Tabakova

게오르기 안드레예프 Georgi Andreev



주최: 동서악회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주관: 현대문화기획



후원:



HANA ART
NETWORK

2023 동서악회 소피아뮤직위크국제교류 불가리아 프로쉬 현악사중주단 초청 음악회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 The International Festival Sofia Music Weeks

Korea • Bulgaria Exchange Concert with the String Quartet Frosch

2009. 5월]	동서음악연구회 발족
2009.12월 4일]	동서악회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창립 총회
2009.10월 10일]	제1회 학술포럼: Microtonal Music in America - 아르코 예술정보 감상실 심포니 (강사: Anton Rovner)
2010.10월 7일]	제2회 학술포럼: Sofia Gubaidulina - 명지대학교 60주년기념관
2011.1월 20일]	동서악회 법인등록
2011.3월 9일]	창단연주회: 대한민국실내악제전 "우리가락 현대를 가다"- 예술의 전당
2011.6월 17일]	제3회 학술포럼: 아프리카의 리듬과 한국의 리듬 비교 - 양재동 우리가락교육연구회 (강사: 정환직)
2011.8월 17일]	The V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We Gather Friends" -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음악원 라흐마니노프홀
2011.8월 17일]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초청 세미나 -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음악원 컨퍼런스홀
2011.11월 1일]	현대국악양상불 곳모리 제3회 정기연주회 "다매체음악회"- 대구 우봉아트홀
2012.9월 20일]	동서악회 제2회 정기연주회: 국악실내악단 "청유" 초청 한일교류음악회 - 용인문화재단 마루홀
2013.2월 19일]	제4회 학술포럼: 오르간음악 - 신촌 성결교회 아천홀
2013.5월 25일]	International Contemporary Music Festival "Present of Orchestral Asia"(아시아의 관현악의 현재) - 교토시립예술대학홀
2013.10월 26일]	어린이합창곡 "공지닷컴 주둥이닷컴"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2013.11월 12일]	동서악회 제3회 정기연주회: "중국 성해음악학원" 초청 한중교류연주회 - 용인문화재단 마루홀
2014.2월 11일]	제5회 학술포럼: 정가 - 양재동 우리가락교육연구회 (강사: 이소정)
2014.7월 3일]	중한작곡가음악회 - 중국광저우 성해음악대학 대강당
2014.11월 12일]	동서악회 제4회 정기연주회: 화성두레보준회와 함께 하는 "우리가락 세계를 날다" - 용인여성회관 큰 어울마당
2015.11월.19일]	동서악회 제5회 정기연주회 "가락나들이" - 용인문화재단 마루홀
2016.4월 16일]	제6회 학술포럼: 정가와 판소리 - 양재동 우리가락교육연구회 (강사:민수민, 허정임)
2016.9월 29일]	동서악회 제6회 정기연주회:우리가락 Project 여섯 번째 "소릿가락"-한국문화의집 코우스
2017.2월 6일]	제7회 학술포럼: 경기12잡가 - 국립국악원 연수동 (강사:강효주)
2017.9월 19일]	동서악회 제7회 정기연주회 :현대음악과 춤으로 풀어낸 경기12잡가 "춘향연가 " - 용인여성회관 큰 어울마당
2018.7월 9일]	제8회 학술포럼: 종묘제례악 보태평 - 국립국악원 연수동 (강사:문현)
2018.9월 13일]	동서악회 제8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범고창신(法古創新) "종묘제례악,현대음악의 프리즘을 통과하다"
2019.2월 11일]	제9회 학술포럼: 종묘제례악 정대업 - 내국열린문화센터 (강사: 김광섭)
2019.11월 25일]	동서악회 제9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종묘제례악,현대음악의 프리즘을 통과하다 II" - 페리지홀
2020.8월 11일]	제10회 학술포럼: 한국 탈춤음악의 이해 I - 예술가의 집 (강사:박인수)
2020.11월 10일]	동서악회 제10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탈들이 날아와 소리가 되다" - 국립국악원 우면당
2021.8월 9일]	제11회 학술포럼: 한국 탈춤음악의 이해 II - 예술가의 집 (강사:박인수)
2021.12월 26일]	동서악회 제11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탈들이 날아와 소리가 되다 II"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2022.6월 13일]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세미나: 한국의 전통음악, 현대의 프리즘을 통과하다 - 소피아 국립음악아카데미 (강사:박윤경)
2022.6월 14일]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음악회: 향과 탈춤의 향연 (Incense and Mask Dances) - 불가리아소피아 필하모닉 실내악홀
2022.6월 17일]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음악회: 한국전통음악의 밤 - Zala Plovdiv
2022.6월 28일]	제12회 학술포럼: "고려가요" 사용항악보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 정효문화재단 다목적실 (강사:주재근)
2022.10월 12일]	동서악회 제12회 정기연주회: 色多론 가요?현대음악과 고려가요(歌謠)의 만남 -국립국악원 우면당
2022.11월 17일]	2022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불가리아 아르덴짜 듀오 초청의 밤 - 일신홀
2023.6월 20일]	동서악회 작품집 1권(춘향연가), 2권(종묘제례악), 3권(탈들이 날아와 소리가 되다) 출판
2023.6월 27일]	2023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세미나: 음악의 섭입,문화의 섭입 - 소피아국립음악아카데미 (강사:이건용)
2023.6월 27일]	2023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음악회: 사향과 이별의 서사 - 국립소피아음악아카데미 판초 블라디게로프홀
2023.6월 28일]	2023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음악회: 한국으로의 음악여행 -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역사박물관
2023.6월 29일]	2023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음악회: 한국으로의 음악여행 - 불가리아 루체 국립예술학교
2023.8월 2일]	제13회 학술포럼: 거문고 - 양재 GalleryK (강사:이선희)
2023.10월 5일]	동서악회 제13회 정기연주회: 色多론 가요? 현대음악과 고려가요(歌謠)의 만남II - 국립국악원 우면당
2023.11월 4일]	2023 동서악회 & 소피아뮤직위크 국제교류 세미나: 불가리아 현악사중주를 위한 현대음악 - 푸르지오홀 (강사: Momchil Georgiev)
2023.11.4일]	2023 동서악회 & 소피아 뮤직위크 국제교류 음악회: 불가리아 프로쉬 현악사중주단 초청음악회 - 푸르지오홀

2023 동서악회 & 소피아뮤직위크 국제교류 '불가리아 프로쉬 현악사중주단 초청 음악회'

아름다운 가을 저녁, “불가리아 프로쉬 현악사중주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2년 6월에 시작된 소피아뮤직위크와의 성공적인 협업에 힘입어, 올해에도 동서악회는 불가리아의 소피아뮤직위크에 초청되어 “사랑과 이별의 서사”라는 제목으로 한국 작곡가들의 현대 창작음악들을 선보였습니다. 2023년 불가리아 공연에서는 특별히 한국과 불가리아의 연주자들과 무용수들은 함께 작업하며 멋진 앙상블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문화와 소리의 섞임, 전통과 현대의 섞임을 바탕으로 양국 음악가들의 열정과 신뢰가 이뤄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이 교류의 연장선으로서 몸칠 게오르기예프 소피아뮤직위크 재단장과 프로쉬 현악사중주단이 한국에 불가리아의 감성과 전통적 음악 유산이 투영된 불가리아 현대음악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교류가 성사되도록 애써주신 소피아뮤직위크 몸칠 게오르기예프 디렉터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연주회를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신 여러 기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모두들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I am very pleased to be hosting “Exchange Concert with String Quartet Frosch” on a beautiful evening.

Thanks to the successful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Festival Sofia Music Weeks in 2022,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was invited to Sophia Music Weeks in Bulgaria again this year and presented contemporary music by Korean composers under the title “Narrative of Love and Separation.” In the 2023 Sofia Music Weeks, Korean and Bulgarian performers and dancers worked together and showed a wonderful ensemble,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 passion and trust of musicians from both countries based on the mixture of culture and sound, tradition and modernity. Today's concert is an extension of this exchange, and Director of Sofia Music Weeks, Momchil Georgiev and the Frosch String Quartet will present Bulgarian contemporary music that reflects Bulgaria's sensibility and traditional musical heritage in Korea.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Director of Sofia Music Weeks, Momchil Georgiev, for his efforts to make this meaningful exchange happen, and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various organizations that helped and sponsored this concert. And I would like to give special thanks to all of you who are here and I hope you all have a great time.



이복남

동서악회 회장

Bok Nam Lee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2023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 SOFIA MUSIC WEEKS EXCHANGE CONCERT WITH FROSCH

2021년, 2022 국제 음악제 소피아뮤직위크는 영광스럽게도 동서악회와 협업을 통해서 매우 독창적인 음악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동서악회 연주자들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작곡 기법이 접목된 창작 작품들을 연주했습니다. 그 계기가 다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어, 작년에 아르덴짜 듀오가 한국 청중에게 불가리아 창작작품을 선보였습니다.

2023년 6월, 이러한 협업이 발전적으로 지속되어 이번에는 양국의 작곡가, 연주자 및 무용가가 출연하여 예술적으로도 더욱 대담한 협업이 이루어져서, 실험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탁월한 무대를 불가리아 청중이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이자리에서는 프로쉬 현악 사중주단 연주로 20세기~21세기에 걸친 불가리아 창작 음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음악회를 준비하고 초청해주신 동서악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지원을 해 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협력 기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청중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불가리아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n 2021 and 2022 the International Festival Sofia Music Week was honoured to present a very original music content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The musicians of the highest level of the Society performed unique works, which integrated Korean tradition and modern composition techniques. That opportunity led to another horizon, and in the last year Duo Ardenza introduced contemporary Bulgarian works to the Korean public.

In June 2023, this collaboration continued in an even more artistically daring way, featuring composers, performers and dancers from both countries, allowing the Bulgarian audience to enjoy an experimental but excellent, and artistically outstanding concert. In its response, today we would like to introduce Bulgarian original music spanning the 20th and 21st centuries with the Frosch String Quartet.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fulness to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for inviting us. I would also like to thank to the Arts Council Korea and partner organizations for their support for this cultural exchange. Mo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audience for joining us today, and I hope you have a great opportunity to enjoy the beauty of Bulgaria.



모칠 게오르기예프

소피아 뮤직위크 디렉터

Momchil Georgiev

Director of Sofia Music Weeks

2023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 SOFIA MUSIC WEEKS EXCHANGE CONCERT WITH FROSCH

Congratulatory Message by Petko Draganov,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Bulgaria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 Sofia Music Weeks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offer my warm congratulations to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and the Sofia Music Week for organizing the “Korea – Bulgaria Exchange Concert with the String Quartet FROSCH”.

Music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brings people together, and I am certain that this exchange concert will showcase the rich cultural heritage of both nations and serve as a platform for creative expression and the promotion of friendship.

I look forward to the continued growth of this musical partnership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friendly ties that bind Korea and Bulgaria.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

Petko Dragamov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Bulgaria
to the Republic of Korea

프로그램

4:30 PM 세미나

몸칠 게오르기예프 교수 (Director of Sofia Music Weeks)

“불가리아의 현악사중주를 위한 현대음악”

통역| 김수미



5:00 PM 연주회

류경선 피아노 모음곡 „스페인의 향수“

피아노| 윤혜성

김종균 플룻,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Rhizome“ (2023) 세계초연

플룻| 김유경, 바이올린| 장새봄, 첼로| 어철민, 피아노| 노애리

최영아 대아쟁 이중주를 위한 „영관“

대아쟁1| 이화연, 대아쟁2| 이신애

INTERMISSION

연주| 프로쉬 현악사중주단

판초 블라디게로프 „세 개의 수채화“ (1942 - 한국 초연)

1. 작은 프렐류드
2. 멜랑콜리
3. 춤곡

마린 골레미노프 현악 사중주 제4번 „미크로콰르텟“ (1967 - 한국 초연)

1. 알레그로 콘 브리오
2. 라르게토
3. 스케르초
4. 지오코소

도브링카 타바코바 „그늘 속 의자에 앉아“ (2004 - 한국 초연)

게오르기 안드레예프 현악 사중주 제1번 „습스키“ (2012 - 세계 초연)

1. Graovska
2. 레치타티보
3. 토카타

PROGRAM

16:30 SEMINAR

Pro. Momchil Georgiev (Director of Sofia Music Weeks)

“Bulgarian Contemporary Music for String Quartet”

Translator| SuMee Kim

17:00 CONCERT

Kyoung-Sun Ryoo Piano Suite “Nostalgia of Spain”

Pf.| Haesung Yoon

JongKyun Kim “Rhizome I” for Flute, Violin, Cello and Piano

(2023) *World Premiere

Fl.| YouKyoung Kim, Vn.| Saebom Chang, Vc.| Cheolmin Auh, Pf.| Airee Loh

Young A Choi “YOUNG KWAN” for Ajaengs

Ajaeng 1| Hwa Yeon Lee, Ajaeng 2| Shin Ae Lee

INTERMISSION

Performance| String Quartet “Frosch”

Pancho Vladigerov

„Three Watercolors“ (1942) *Korean Premiere

1. Little prelude
2. Melancholy
3. Dance

Marin Goleminov

String Quartet No. 4, “Microquartet” (1967) *Korean Premiere

1. Allegro con brio
2. Larghetto
3. Scherzando
4. Giocososo

Dobrinka Tabakova

„On a Bench in a Shade” (2004) *Korean Premiere

Georgi Andreev

String Quartet No.1 “Shopski” (2012) *World Premiere

1. Graovska
2. Recitativo
3. Toccata

SEMINAR

몸칠 게오르기예프 Momchil Georgiev



소피아대학교 학사 (문화학), 소피아국립음악원석사 (플루트), 박사 (음악 경영)
1991~1996 다마스쿠 초청 교수 / 1997-2000 문화부 근무 / 영국아트카운실
2006~ 불가리아국립라디오 (PD, 경영위원)
2007~ 소피아뮤직워크 (프로그램디렉터, 재단 대표)
2016~ 소피아국립음악아카데미 교수 (music management)
2017~ MusiQuE-Music Quality Enhancement 유럽학점인증위원회
2019~ 불가리아문화분야고용업체협회 총무
2021~ PEARLE 유럽공연예술고용업체협회 집행부위원

Professor Momchil Georgiev, PhD, was born on August 15, 1959 in Sofia, Bulgaria. His educational background is mainly in the field of music – as flutist and musicologist, in cultural theory and economics. His wide professional background includes high and middle leve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positions, as well as analytic and consultancy activities. He has been a lecturer from his experience as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of the Bulgarian National Radio (BNR), Adviser to the Minister of Culture, Director of “Music production and Ensembles” and Member of Program Council of the BNR, Director of National Center for Music and Dance – Ministry of Culture, Administrative Director of State Music Theatre – Sofia, professor in the High Institute of Theatre and Music in Damascus – Syria (Founder of the Syrian Flute School), Journalist and Musical Editor (more than 130 publications), among others. Within the broad scope of his public activities the following appointments could be highlighted: General Secretary of Bulgarian Association of Employers in Culture (BAROK), Program Manager of “Sofia Music Weeks” Festival, Chairman of “Prof. Vladi Simeonov” Foundation, expert and consultant of different PHARE and EU programs, teacher in Management of Performing Arts in State Music Academy, New Bulgarian University, University for World and National Economics.

PERFORMERS

현악사중주단 프로쉬 String Quartet Frosch

네기나 스토야노바 - 바이올린	Negina Stoyanova - violin
페타 디미트로바 - 바이올린	Petya Dimitrova - violin
마리야 발차노바 - 비올라	Mariya Valchanova - viola
테오도라 아타나소바 - 첼로	Teodora Atanasova - cello



프로쉬현악사중주단은 2007년도에 소피아에서 창단되었으며, 초기에는 해마다 개최되는 불가리아 국립라디오 콘서트시리즈에서 “불가리아국립라디오 대표 솔리스트” 자격으로 참여해서 연주를 했다. 불가리아의 작곡가 블라디게로프, 일리에프, 게오르기예프, 카잔지예프, 케르켈로프 등 다수의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해서 녹음을 남겼다. 또한 유럽의 작곡가들, 예를 들어 쇼스타코비치, 슈베르트, 볼프강, 쇤베르크, 베베른, 바르톡 등의 작품도 녹음했다.

루세에서 열리는 “겨울밤 음악축제”, 소피아에서 열리는 “소리와 연결”, “소피아뮤직위크” 국제 음악제, 루세에서 열리는 “3월의 뮤직데이” 국제 음악제, 가브로보에서 열리는 “실내악 축제”, 소조폴에서 열리는 “아폴로니아”, 브뤼셀에서 열리는 “Art Musical Festival”, 바르나에서 열리는 “바르나서머음악제”, 파자르지크에서 열리는 “이반 스파소프축제 - 겨울 음악의 밤” 등 다수의 음악제에 참가하였다.

2008년에는 오스트리아가 주최한 “국제 오스트리아 실내악 음악축제”에서 2위 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불가리아의 작곡가 마린 골레미노프를 기념하는 콩쿨에서 1위를 수상했다. 2015년에는 불가리아 국가에서 수여하는 “크리스탈 리라”상을 수여했다.

프로쉬현악사중주단은 불가리아 작곡가들의 많은 작품을 초연했으며, 또한 해외 작곡가들의 현대창작곡들을 불가리아에서 최초로 소개해왔다. 예를 들어 조지 크룸, 오스발도 골리호브, 스티브라이흐, 테리 라일리, 루멘 발료조프, 알렉산더 라드빌로비츠, 류보미르 데네프, 바실 카잔지예프, 게오르기 아르나우도프, 쉰네 스코웬, 페터르 케르켈로프, 마틴 게로르기예프 등의 작품을 초연으로 소개했다. 이들 일부는 프로쉬현악사중주단에 곡을 헌정하기도 했다.

노르웨이에서 초청을 받아 Oslo Concert House에서 불가리아의 현대음악과 노르웨이의 현대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다. 소피아에서 개최된 제1회 Musica Nordica에도 참여했다. 2017년 11월 1일에는 재모스크바불가리아문화원 초청으로 차이코프스키 박물관에서 연주를 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러한 초청이 이어져 “New Bulgaria Music” 프로젝트 일환 모스크바에서 불가리아 창작음악을 소개했다. 2018년에는 소피아 필하모닉의 “유럽의 음악” 프로젝트에 초청되어 체코, 영국에서 연주를 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처음으로 한국의 동시대 작곡가 작품을 불가리아에 소개하는 연주회에서 2명의 주자가 참여하여 다수의 한국 작곡가 작품을 불가리아에서 초연 연주했다.

STRING QUARTET "FROSH" was founded in 2007 in Sofia. FROSH began concert activity with an annual participation in the cycle concerts of the Bulgarian National Radio "The Radio Soloists". FROSH is in particular strong in the repertoire of Bulgarian and Western European Contemporary music. The quartet has contribution in the recording fund of the National Radio for the works by P. Vladigerov, K. Iliev, V. Kazandzhiev, M. Georgiev, P. Kerkelov, Shostakovich, F. Schubert, H. Wolff, A. Schoenberg, A. Webern, B. Bartok.

The ensemble participated in the numerous festivals such as "Winter Music Evenings" - Ruse, "Ambul" - Sofia, "Sofia Music Weeks", "MarchMusic Days", "Chamber Music Days" - Gabrovo, "Apollonia", "Ars Musica" - Brussels, "Varna Summer".

In 2008, the quartet received second prize 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Austrian Chamber Music - Sofia. In December 2008, it won the first prize at the Academic Chamber Music Competition dedicated to Marin Goleminov. The quartet is a 2015 "Crystal Lyre" laureate in the Chamber Ensembles category. The "Frosh" Quartet performs a number of works by George Crumb, Osvaldo Golikho, Steve Reich, Terry Riley, Sunne Skowen, and world premieres of Bulgarian contemporary composers such as Rumen Balozov, Alexander Radvilovich, Lyubomir Denev, Vasil Kazandzhiev, Georgi Arnaudov, Petar Kerkelov, and Martin Georgiev. Some of the works were specially written for the quartet.

Among the big projects of the quartet are a concert at the Oslo Concert House, dedicated to Bulgarian and Norwegian contemporary music, as well as participation in the first edition of the "Musica Nordica" festival in Sofia. In the period January-June 2018, the quartet participated in the project of the Sofia Philharmonic "Music of Europe" with two concerts dedicated to the Czech Republic and Great Britain.



플루트 김유경
Flute | Youkyoung Kim

- Elder Conservatorium of Adelaide University Flute Performance BA졸업
- 프랑스 베르사이유 국립 음악원 플루트 최고연주자, 고등연주자 및 실내악 1등 졸업
- 현) 선화예중, 부산예고 출강 및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피아노 윤혜성
Piano | Haesung Yoon

- 예원학교, 서울예고 졸업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Diplom 졸업
- 독일 쾰른 국립음대 Konzertexamen 최우수 졸업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현대음악 Master 졸업
- 현)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 출강
- Ensemble O.N 리더, Ensemble Eins 단원



바이올린 장새봄
Violin | Saebom Chang

- 선화예중, 예고,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학사 및 동대학원 석사
- 현) JS string, 클레프콰르텟 멤버, 서울신학대 평생교육원, 인천예고, 선화예중·예고 출강

피아노 노애리
Piano | Airee Loh

-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학사, 줄리어드 석사, 메릴랜드대학교 박사
- 현)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 페다고지 대학원 외래교수



첼로 어철민
Cello | Cheolmin Auh

- 프랑스 피리 음악원 및 베르사유 국립 음악원 졸업
- 현)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아쟁 이신애
Ajaeng | Shin Ae Lee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아쟁 수석, 아쟁앙상블 Bow+ing 동인
- 국가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아쟁 이화연
Ajaeng | Hwa Yeon Lee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전문사 졸업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아쟁앙상블 Bow+ing 동인
- 국가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 현) 중앙대학교 강사



COMPOSERS & PROGRAM NOTES

류경선 (1972~)



1972년 서울 출생의 류경선은 서울예술고등학교 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 특별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학사(B.A.)와 석사(M.M.) 학위를 취득하였다. 많은 대학의 강사와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지난 2022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단독 작곡발표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실내악곡들을 전곡 초연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달에는 플룻,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각 악기들의 독주 위주의 편성으로 작곡가 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작곡발표회를 부제 '꿈꾸는 심장(A Dreaming Heart)'으로 개최하였다. 현대음악의 날카로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청중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현대음악을 모색 중이며 현재 (사)한국작곡가협회의 이사, 창악회와 (사)한국여성작곡가회의 감사를 맡고 있고, 이 밖에도 ISCM, ACL, 21C악회, 운지회, 동서악회, 소리목, 신음악회 등의 다양한 현대음악작곡악회와 협회의 회원으로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의 음악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Kyoung-Sun Ryoo (1972~)

Born in 1972, Ryoo Kyoung-Sun majored in composition at Seoul Arts High School of Music and entered the department of composition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usic as a special scholarship student, earning a bachelor's degree(B.A.) and an M.M. degree. After that, she received D.M.A. degree in composition from Yonsei University's Graduate School. She has served as a lecturer at many school and university and has served as a visiting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In 2022, she was selected for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 Artistic Creation Activity Support Project, and held a solo composition recital at the Recital Hall of Seoul Arts Center and presented various chamber music works as full-length premieres. Last month, a composition recital was held at the Kumho Art Hall Yonsei with the subtitle 'A Dreaming Heart', in which the composer's individual thoughts and hearts were expressed through music with a solo arrangement of each instrument such as flute, violin, viola, and piano. While maintaining the sharp identity of contemporary music, she is looking for contemporary music that is one step closer to the audience.

She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Korean Composers Associ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Women Composers and also a member of various contemporary music composition societies and associations such as ISCM, ACL, Sorimok, East-West Concert, and New Concert Society and so on. Currently she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General Education.

피아노 독주 모음곡 "스페인의 향수"

2018년 8월, 45도 날씨의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것은 태양광이 강렬한 스페인 같은 더운 나라에서 참으로 중요한 재산이고 권력이었을 '물'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다. 론다, 알카사르, 코르도바, 톨레도, 아랑헤즈 당지를 다니면서 다양한 수조와 호수 등을 보며 물에 관한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아노 모음곡 "스페인의 향수"는 스페인 여행에서의 첫 번째 추억인 '물'을 소재로 한 피아노 독주를 위한 다섯 개의 모음곡이다. 제1곡 <the sound resonates from the water>는 깊은 물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노래를 표현하였고, 제2곡 <the shining sunlight on the surface of the water>는 물 수면위로 반짝이는 햇살을 표현하였다. 제3곡 <the wavelength of the water>는 미세하기도 하고 때로 크기도 한 물의 파장을 표현한 것이며, 제4곡 <the war of the water>는 이 물을 확보 혹은 쟁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었을 물로 인한 전쟁과 승리를 표현하였다.

제5곡 <the raging sunlight>는 작렬하는 한 여름의 태양을 표현 한 곡으로, 물의 권력은 이 강렬한 햇빛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것이다. 오늘 여기에서는 시간관계상 제1곡을 제외한 4개의 모음곡이 연주된다.

Suite for Piano Solo "Nostalgia in Spain"

In August 2018, I travelled to Spain in 45-degree weather. It is a strong impression of water, which must have been a very important asset and power in a hot country like Spain. While travelling Ronda, the Alcazar, Córdoba, Toledo, Aranjuez and other places, I thought that I would like to express the image of water through music by looking at various tanks and lakes. "Nostalgia in Spain" is Piano Suite composed by five pieces based on the first memories of a trip to Spain, "water". The first suite, <The Sound Resonates from the Water>, depicts a song that seems to resonate from the depths of the Water, and the second suite, <The Shining Sunlight on the Surface of the Water>, depicts the sun shin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third suite, <The Wavelength of the Water>, expresses the waves of water, which are both minutes and sometimes large, and the fourth suite, <The War of the Water>, expresses the wars and victories caused by the water that must have taken place, in order to secure or win this water. The last suite, <The Raging Sunlight>, is a depiction of the blazing summer sun, and the power of water may have originated from this intense sunlight. On today's concert, four suites except the first suite will be played, due to the time constraints.

김종균 (1972 -)

서사가 있는 음악으로 소통하는 작곡가 김종균은 종교음악과 실내악 중심의 현대음악은 물론 오페라, 음악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관객을 만나오고 있다. 경희대학교 작곡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이론 석사 및 박사를 수료하고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공연영상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그동안 7개의 뮤지컬·음악극을 작곡하여 무대에 올렸고 2회의 작곡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극과 음악극에서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숭의여자대학교 공연예술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아트&뉴미디어작곡 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며 대한음악예술과비평학회 회장, 현대음악동인SIENO, 동서악회, 한국연극학회, 한국연극교육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JongKyun Kim (1972 -)

Composer Jongkyun Kim who communicates through music with a narrative, engages in various genres of music, including religious music and chamber music, as well as opera, musicals, and more. He graduated from the composition department and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obtained his master's degree, and completed doctoral course in music theory at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he obtained a doctoral degree in performing arts from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Over the years, he has composed seven musicals and music dramas, hosted two composition recitals, and worked as a music director in plays and music dramas. After serving as a professor at Soongeui Women's University's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Art & New Media Composition major in Church Music department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HE is also active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a Association of Musical Arts and Criticism, a member of contemporary music group SIENO, the East-West Music Society, the Korean Theater Association, and the Korean Theater Education Society.

플룻,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Rhizome I (2023, 초연)

뿌리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도 번져나갈 수 있는 번짐과 엉킴의 형상인 리좀(rhizome)은 프랑스 현대 사상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에 의해 수평적이고 병렬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사유와 그것의 연결과 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동일한 선상의 리토르넬로(ritornello)형식은 그가 가장 완벽한 음악형식이라고 지칭하였고 이것에 그의 차이와 반복의 개념을 투영시켰다. 들뢰즈의 철학적 사고에 의한 세 가지 음악적 차이와 반복의 개념을 리토르넬로 형식안에서 음악에 수용하였으나 보다 중도적이고 타협적인 맥락에서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Rhizome I for Flute, Violin, Cello, and Piano (2023, premiere)

The term "rhizome," a form of spreading and tangling that can extend even in unrooted areas, refers to the thought and connection of various ideas horizontal and parallel by French contemporary philosopher Gilles Deleuze. Similarly, the concept of "ritornello" on the same continuum is referred to by him as the most perfect musical form, onto which he projected his ideas of difference and repetition. I accepted Deleuze's three philosophical concepts of musical difference and repetition into this work within the ritornello format, but I tried to express them in a more centrist and compromise-oriented context.

최영아 (1967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독일 자르브뤼켄 국립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졸업하였다.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명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의 강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에 출강하고 있다. 최영아는 현대음악에 아울러 국악에 큰 관심을 가지며 공부해 가는 작곡가이다. 민요와 판소리, 장구와 국악기 등을 익혀오며 2011년부터 동서악회의 우리가락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음악의 원형을 바탕으로 한 소재들을 작품에 담은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Young A Choi (1967 -)

Composer Young A Choi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major in music composition and completed her graduate studies at the same institution. She then pursued further studies in Germany, majoring in music composition and earning her degree from Hochschule des Saarlandes für Musik und Theater. Throughout her career, she has held positions as a lecturer at prestigious institutions, including Kookmin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urrently, she serves as an instructor/lecturer at Seoul Arts Center Music Academy. She is a composer who has a profound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music, in addition to contemporary music. She has undertaken a rigorous study of Korean folk songs and Pansori, complemented by her proficiency in playing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such as Janggu and Ajaeng. Recently, she has been deeply focused on incorporating themes and elements from traditional Korean music into her compositions.

대 아쟁 이중주를 위한 <영관>

두 대의 대아쟁 편성으로 작곡한 이 작품은 원곡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곡에서 파생된 음악적 특징들을 재조합한 여섯 부분의 변주적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각각의 부분마다 변화된 색채로 원곡의 유장함을 투영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안에 일무가 만들어내는 담대한 춤선에 관한 상상을 그리며 작곡하였다. 대아쟁의 깊고 묵직한 울림 속에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안녕과, 평정으로의 보살핌을 희구하는 기원을 담아본다. 원곡의 영관은 종묘제례악 정대업 열 한곡의 마지막 순서로 정대업 전체의 과정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인출장이며 역대 조종의 무공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YOUNG KWAN>

Composed of two Ajaeng compositions, the work includes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song, and consists of six variational episodes that recombine musical features derived from the original song.

Each part, with unique and different musical colors, was intended to proj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song. In addition, each part was composed imagining the bold dance line created by Ilmu - a type of group dance of people performing in multiple rows.

The song expresses the wish for the well-being of you, me, and all of us in the deep and heavy echo of the Ajaengs.

The original song is a recessional song that wraps up the entire process of Dae-eop in the final order of the 11 songs of Jeong Dae-eop, and contains praise for the martial arts of kings of all time.

판초 블라디게로프 (1899 - 1978)

판초 블라디게로프는 불가리아 민속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성공적으로 결합시켜서 불가리아의 민족음악을 정립했다고 인정받는 국민 작곡가이다.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고 10세부터 작곡 및 이론을 배웠다. 1912년 - 1920년 기간 베를린에서 유학을 했으며, 1932년 불가리아 소피아로 귀국하여 40년 동안 국립소피아음악아카데미에서 피아노, 실내악, 작곡을 지도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동시에 작품 활동도 계속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 (Weissenberg)도 그의 제자였다. 1933년 불가리아 작곡가협회 창립에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오늘날 국립 소피아 음악아카데미 공식명칭에는 그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는 '불가리아 작곡가 제2세대'를 이끌어 나간 인물로 평가받는다. 창작 작품으로는 교향곡 등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 17곡, 피아노 협주곡 5개,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수십 개의 실내악곡, 솔로 성악과 합창을 위한 곡,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무대를 위한 음악 등 다수를 남겼다.



Pancho Vladigerov (1899 - 1978)

Pancho Vladigerov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national composers, since he is recognized as having established identity for Bulgaria's national music by successfully combining Bulgarian folk music and classical music. As a child he studied piano, and from the age of 10 he studied composition and music theory. He studied in Berlin from 1912 to 1920, and returned to Sofia, Bulgaria in 1932, where he taught piano, chamber music, and composition at the Sofia National Music Academy for 40 years, nurturing younger students and continuing his artistic career. World-famous pianist Alexis Weissenberg was also one of his students. In 1933 he participated as a member in the founding of the Union of Bulgarian Composers. Today, the official name of the National Music Academy - Sofia bears his name. He is evaluated as a leader of the "second generation of Bulgarian composers." He left creative works such as 17 pieces for orchestra including symphonies, 5 piano concertos, 4 violin concertos, dozens of chamber pieces, pieces for solo voice and choir, and music for the stage including musicals, operas, and ballets.

마린 골레미노프 (1908 - 2000)

골레미노프는 '불가리아 작곡가 제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특히 불가리아 민속음악을 독창적인 음악적 어법으로 변형시켜 자신만의 특징 있는 스타일을 구현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소피아에서 바이올린과 음악이론을 배우고,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서 ScolaSantorum에 참여하고, 에콜 노르말 드 뮤지끄에서 작곡을, 소르본느 대학에서 미학, 문학을 공부했다. 1934년에 불가리아로 돌아와 작곡가,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활동했다. 1938년에 다시 뮌헨으로 유학을 가서 Josef Haas 교수, Knappe 교수와 함께 작곡을 전공하고 Karl Ehrenberg 교수에게 지휘를 사사했다. 1943년, 불가리아로 귀국하여 국립 소피아 음악아카데미에서 40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1965-1967간 소피아 국립오페라 단장을 역임했고, 1976년에는 비엔나 대학의 Gottfried von Herder 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이바일로", "트라키아 우상" 등 오페라 4개, "네스티나르카" 등 음악무용극 2개, 교향곡 4개 외 다수의 오케스트라 곡, 현악사중주 8곡, "민요를 위한 조곡" 등 다수의 실내악 곡, 합창 및 성악을 위한 곡 다수를 남겼다.



Marin Goleminov (1908 - 2000)

Goleminov is a representative figure of the "second generation of Bulgarian composers," and it is acknowledged that he realized his own unique style, transforming Bulgarian folk music into original musical diction. He studied violin and music theory in Sofia, then went to study in Paris, France, where he participated in the Scola Santorum, composition at the École Normale de Musique, and studied aesthetics and literature at the Sorbonne. In 1934 he returned to Bulgaria where he worked as a composer and violinist. In 1938, he went to Munich to study again, where he majored in composition with Professors Josef Haas and Knappe and studied conducting with Professor Karl Ehrenberg. In 1943, he returned to Bulgaria, where he served as a professor at the National Academy of Music in Sofia for 40 years. He served as director of the Sofia State Opera from 1965 to 1967, and in 1976 he received the Gottfried von Herder Prize from the University of Vienna. His works are four operas including "Ivailo" and "Thracian Idols," two music-dance plays including "Nestinarika," four symphonies and many orchestral pieces, eight string quartets, and "Suit for Folk Songs." He left many chamber music pieces, and many pieces for choir and vocal music.

도브링카 타바코바 (1980 -)

불가리아의 유서깊은 도시 플로브디프에서 출생, 11세에 런던으로 이주하여 길드홀 음악학교를 거쳐 킹스칼리지에서 작곡 박사학위를 받았다. Royal Philharmonic Society, BBC Radio 3, European Broadcasting Union에서 작곡을 위촉받은 바 있으며, 데뷔 앨범 String Paths는 ECM 레코드에서 2014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에는 BBC상주 작곡가로 임명되었다. Schleswig-Holstein, Moscow Homecoming, Three Choirs UK, World Sun Song, Latvia and Dark Music Days 등 다수의 국제 음악제에 참여하였으며 제4회 비엔나국제콩쿨에서 Jean-Frederic Perrenoud 상을 수상했고, Queen's Golden Jubilee에서 애국가상, 킹스칼리지가 수여하는 아담상 등을 수여했다. 주요 프로젝트로 2016년 셰익스피어 400주년 기념 칸타타 „Immortal Shakespeare“를 작곡했고, 영국 뉴뮤직 비엔날레 영화 PULSE와 콜라보를 했다. 트루로 성당 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로 작곡한 합창곡들은 2019년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녹음되었는데 이 앨범은 그라마폰 매거진에서 비평가 상을 받기도 했다. 같은 해 „Centuries of Meditations“는 PRS 재단으로부터 „지난 25년간 가장 뛰어난 영국의 음악 베스트 11“에 선정되어서, 영국 전역에서 공연되는 영광을 누렸다. „Orpheus' Comet“ 작품은 유로라디오 음악교류 50주년 기념식에서 오프닝 곡으로 연주되었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은 암스테르담 뮤직 헤보우에서 Arthur Jussen, Lucas Jussen이 초연 공연을 했다.



Dobrinka Tabakova (1980 -)

Born in the historic city of Plovdiv, Bulgaria, she moved to London when she was 11, where she attended the Guildhall School of Music and received a doctorate in composition from King's College. She has been commissioned to write compositions for the Royal Philharmonic Society, BBC Radio 3 and the European Broadcasting Union, and her debut album String Paths, released by ECM Records, was nominated for a Grammy Award in 2014. In 2017 she was appointed as BBC Composer in Residence. She participated in numerous international music festivals including Schleswig-Holstein, Moscow Homecoming, Three Choirs UK, World Sun Song, Latvia and Dark Music Days, and won the Jean-Frederic Perrenoud Prize at the 4th Vienna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at the Queen's Golden Jubilee. She was awarded the National Anthem Award and the Adam Award from King's College. As her main projects she composed the cantata "Immortal Shakespeare" for the 400th anniversary of Shakespeare in 2016, and she collaborated with the film PULSE for the British New Music Biennale. Her choral compositions, which she composed as a result of a residency program at Truro Cathedral, were recorded for her performance by the BBC Concert Orchestra in 2019, an album that also received a critics' award from the Gramophone Magazine. In the same year, her "Centuries of Meditations" was selected by the PRS Foundation as one of the "11 most outstanding British songs of the last 25 years" and had the honor of being performed throughout the UK. The work „Orpheus' Comet“ was performed as the opening song at the ceremony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Euroradio music exchange. The Concerto for Two Pianos was premiered by Arthur Jussen and Lucas Jussen at the Muziekgebouw in Amsterdam.

게오르기 안드레예프 (1969 -)

안드레예프는 불가리아 국악예고에서 “가둘카” 악기를 배우고, 국립 소피아 음악아카데미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불가리아에서 가장 큰 앙상블 “필립 쿠테프 국립국악예술단” 지휘를 맡았고 2000년부터 수석지휘자를 역임했다. 작곡 활동으로는 다수의 실내악과 피아노 곡을 작곡했으며 불가리아 전통 선율 400여 곡을 편곡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서양 음악 전공자로서의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불가리아 민속적인 요소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다. 2001년 Neshka Robeva의 스펙터클 “Between Two Worlds”를 위한 극음악으로 “거장 Dimitar Valchev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Alfred Schnittke 작곡상 (1994), 클래식 FM 라디오 “황금깃털상” (2004), “The Legend” 공연 극음악에 대한 “올해의 음악가” 상, 국립문화궁전 “Salon de Arts” 페스티벌에서 특별상, 불가리아 작곡가협회 “Golden Quintet” 상 등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스펙터클 극음악, 실내악, 교향곡, 합창교향곡 등이 있다.



Georgi Andreev (1969 -)

Andreev mastered the Bulgarian folklore instrument “gadulka” at the Bulgarian High School of Traditional Music and majored in composition at the National Sofia Music Academy. He conducted the largest ensemble in Bulgaria, “Philip Kutev National Ensemble for Traditional Music” and served as a chief conductor since 2000. As a composer, he created a number of chamber music and piano pieces, and arranged over 400 traditional Bulgarian melodies. He attempted to combine Bulgarian folk elements while maintaining his Western music background. In 2001 he was awarded the „Prize of Maestro Dimitar Valchev“ for the music for Neshka Robeva's spectacle „Between Two Worlds“. In addition, he received the Alfred Schnittke Award for Composition (1994), the Classic FM Radio „Golden Feather Award“ (2004), the „Musician of the Year“ award for the drama music of the performance „The Legend“, the Special Award at the „Salon de Arts“ Festival at the National Palace of Culture, SBC won the „Golden Quintet“ award. His works include theater music, spectacle music, chamber music, symphonies, and choral symphonies.

동서악회의 초청으로 불가리아 음악을 소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리아는 서유럽과 중동-아시아를 잇는 중간, 즉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동북으로는 러시아, 남서로는 아프리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각 시대마다 패권을 누렸던 문화를 다양하게 받아들이면서 발전시켜왔습니다. 14세기 - 19세기 기간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종속되어야 했던 아픈 역사 때문인지 민요 가락을 들어보면 단조가 많고 우리 한국의 애환이 서린 정서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을 찾아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리아는 모든 슬라브 족이 사용하고 있는 .키릴 문자'를 개발하였기에, 이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7세기에 .불가리아'라는 국명을 정한 이래 한 번도 그 이름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 노예 제도를 도입한 적이 없고, 민주화 과정에서도 발칸 반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정치적 변혁을 이룬 나라입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불가리아 의 작곡가 및 작품 가운데 .민족음악적'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도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을 엄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연주를 맡은 프로쉬 현악4중주단은 불가리아에서도 특히 현대음악 전문 연주 단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화롭고 고즈넉한 불가리아의 풍경을 상상해보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하나아트네트워크



사진: 하나아트네트워크 제공
알렉산더르네프스키 성당